

이달에 찾아간 인물 인제 심심산골의 서울 은퇴자 權赫來씨 부부가 함께 산채밭에서 부르는 ‘청산에 살리라’



▲ 권혁래씨의 ‘대원농장’ 표지판



▲ 산채밭에서 자라고 있는 곰취나물

강원도 인제군麟蹄郡 상남면 上南面 상남3리, 인제군의 최남단으로서 홍천군의 내면과 내촌면에 접하고 있으며 래프팅의 명소 내린천內麟川 지류의 최상류에 있어 인제읍까지는 40킬로미터, 기린면의 군사도시로 유명한 현리縣里까지 15킬로미터, 상남면 미산리美山里의 절경 내린천 분류와 미산계곡까지는 3,4킬로가 되는 곳에 권혁래씨의 ‘대원농장大圓農場’은 자리잡고 있다. 일

대에서 가장 높은 것은 서쪽의 가득봉可得峰으로 해발 1천1백미터 정도인데 거기 올라가 소원을 빌면 원하는 바가 충만히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한다. 농장은 인가 하나 모로 들어설 자리가 없는 심곡의 급경사 비탈의 중턱에 숨어 있어 밖에서는 그 자취도 보이지 않았다. 해발 8백미터 정도의 능선에 솟은 관음봉觀音峰이 품은 작은 급경사턱에 컨테이너 박스

를 옮겨다 설치한 작은 농막農幕과 그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산채 보관용 저온 창고, 그리고 4륜구동 소형차 한 대를 돌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울창한 수림에 용납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깎아지른 산비탈 농장에서는 ‘보랏빛 산나물 토서곰취, 두릅, 엄나물, 산초, 산마늘, 산미나리 등을 생산하는데 정작 그 농장이라는 것은 어디 밭 한 뼤기 자리해 보일 수가 없는 악산비탈이었다. 그런데도 그 관음봉 밑에 물이 나는 탑타바위가 있어 독실한 불자인 이곳 주인 권혁래權赫來씨는 그곳에 장차 암자를 지어 정사精舍를 삼을 것이라 하였다.

8월 7일 본사 탐방 팀은 아침 일찍 7시 반에 필운동 사무실에 모여 스타렉스 승합차로 서울을 출발하였다. 전일 밤부터 서울 지역에 퍼붓던 폭우는 아침까지 계속되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날 전부터 날짜를 예약한 바여서 날씨 때문에 이를 미루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다. 신설된 경춘고속도를 타기 위해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서울 동부외곽의 월릉교쯤에 이르자 폭우는 멎음하며 소강이 되었으나 차가 밀리며 교통량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휴가철의 사실상 마지막 주말을 틔타 강원도 산간으로 피서를 떠나는 차량이 우중임도 아랑곳없이 서울을 빠져나가느라 장사진을 이루어 도로는 금시 주차장으로 변하였다. 서울의 동쪽 구리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부터 동홍천 나들목까지 한 시간이면 주파한다던 거리를 세 시간 반이 걸려서야 가까스로 통과하였고 그곳에서 국도와 지방도



▲ 대원농장의 컨테이너농막과 그보다 규모가 작은 저온창고



▲ 권덕도씨가 농막 앞에서 권혁래씨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를 사오십분 달려, 지방도변 ‘방아다리’라는 곳까지 마중을 나온 권혁래씨 내외를 만나, 혁래씨의 사륜구동 선도차를 따라 2,3킬로 좁은 산골길을 돌아 들어가 현지 농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가 반쯤이나 넘어서였다.

이곳 대원농장은 사실 권혁래씨가 그 부인과 함께 하는 것이어서 사업자 등록이 부인 정오현鄭五鉉씨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원大圓’이라는 농장 이름은 내외 두 사람의 법명法名에서 앞 글자를 떼어 합친 것이다. 두 사람은 생래의 독실한 불자佛子이다. 권혁래씨는 구례 송광사松光寺의 방장方丈 보성普成에게서 법명을 ‘대연大然’으로 받았는데 이는 원효대사元曉大師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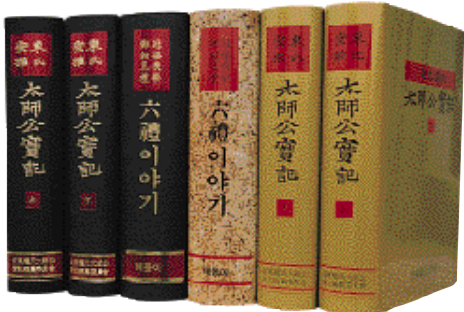
큰 깨우침 ‘지리지무리至理之無理 : 이치에 이른즉 이치가 없고, 불연지대연不然之大然 : 그렇지 아니한 것이 크게 그러 한 것’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고, 부인 정오현씨는 서울 강남 봉은사奉恩寺 주지에게서 받은 법명이 ‘원만심圓滿心’이어서 두 법명의 머리를 합쳐 대원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서기관으로 정년을 마친 권혁래씨는 그의 마지막 임지이던 국립 삼척대학의 사무국장 시 1997년에, 당시 강원일보에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이곳의 임야를 팔겠다는 광고가 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98년에 삼척대에서 정년을 맞은 그는 92년부터 4년 동안 강릉대 총무과장 등으로 있다가 삼척대로

永嘉言行錄에 앞서 나왔어야할 영가언행록과 쌍벽을 이루는 千年安東權氏의 編年體姓氏史



저자-權五焄
저작권자 安東權氏太師公實記編纂委員會
보급처 安東權氏宗報社
상·하2권 값 15만원
六禮이야기[48,000원] 별책은품증정



4·6배판163면에집성된시조태사공의득성이전김알지大輔公이래천년과득성이후천년의榮辱과곡절이어린안동권씨姓族의大河實錄!
文獻世鑑·太師權公實記·陵洞誌·陵洞實記·陵洞千年略史등안동권씨대종중에5백년동안축적돼온古文漢字만리장편敍事의완벽한국역주해와원문조판병재!
원색사진판6면, 원고지1만여장분량으로책자의수명1백년을내내보울 종로구 필운동 285-5번지 파크뷰타워 807호
고제작한최고급實藏本.

安東權氏宗報社

전화 02)723-4480 · 732-9139